

연극의 성패를 좌우하는 배우의 역할

〈박정자의 19 그리고 80〉·〈춤추는 원숭이 빨간 피터〉·〈동물원 이야기〉를 중심으로

양기찬 · 연극평론가

한정된 무대에서 더 중요시되는 배우의 역할

연극은 배우들의 살아있는 움직임을 무대라는 축소된 공간을 통하여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연극의 특성은 무대가 지니는 그 고유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무대가 내포하는 무한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연극의 세계를 배우들은 관객들에게 마치 축소된 인생의 단편적인 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무대는 연극이라는 장르가 성립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어쩌면 연극의 근본적 바탕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무대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무대 배경도 중요하겠지만 - 실제로 현대 연극에서의 무대 예술/무대 연출이 연극적 세계의 구축에 필수 불가결한 조건으로 발돋움하고 있음 - 역시 연극에서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다름아닌 배우의 역할이다.

배우는 무대의 일부분이기도 한 동시에 무대의 세계를 하나의 새로운 세계로 탈바꿈하게 하는 근본적으로 무대예술의 필수적인 존재인 것이다. 이러한 배우의 역할과 그 역할의 중요성은 극 중에서 배우가 차지하는 비중이 연극 공연의 실패 또는 성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연극에서 배우가 주는 직접적인 영향은 배우가 무대 위에 세워진 상상의 공간과 얼마나 잘 동화되느냐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배우의 역할이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연극적 세계를 이끌어 가며 관객들을 작품이 지향하는 세계로 인도해서 하나의 자연스러운 공간으로 연출하는 것이 직접적인 영향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무대는 고대의 서사시적이었던 희랍 연극들, 우리의 마당극

과 같은 전통 예술들, 연극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무속 제의들 그리고 한 명의 배우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지난 1월에 공연되었던 무대의 최소화·최적화·간소화를 보여준 서주희의 〈버자이너 모너로그〉와 동일한 모노 드라마 또는 사실주의 무대가 아닌 추상적인 무대에서의 연기, 다시 말하자면 양상하게 죽어가는 나무 한 그루로서 무대의 의미와 무대의 경계선을 보여주는 임영웅 연출, 베케트 원작 〈고도를 기다리며〉의 무대 등에서 보여지는 연기자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부각되는 작품 등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극의 한 단면은 무대의 최소화를 통해서 언어의 중요성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배우들의 연기력 등이 작품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배우의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간접적인 영향은 무대가 공간을 직접적으로 만들어 관객에게 다가갈 때라고 할 수 있다. 즉 무대 연출/배경이, 배우의 존재와 무관하게 작품이 지니는 특성을 펼쳐 보일 때 우리는 연극에서의 배우의 역할을 간접적인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무대 연출이 직접적으로 연극에 영향을 미치며, 관객들이 동화할 수 있는 실제적인 무대 배경 연출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날의 〈긴 밤으로의 여로〉 등과 같은 표현주의 연극은 무대 연출이 배우의 역할보다 더 중요할 수 있으며 또는 배우와 동일한 영향을 관객들에게 미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간접적인 영향의 다른 예로 일상에서 관객이 만날 수 있는 연극 공연은 아마도 오페라 또는 뮤지컬이 그 대표적인 장르라고 할 수 있다. 즉 간접적인 영향은 배우의 연기도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무대 배경의 연출에 따라 작품의 성격을 관객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무대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공연에서의 배우의 위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품의 특성과 긴밀한 상관관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관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연에서의 개체가 무엇이냐를 판단함으로써 공연을 이해하는데 한편 쉬워진다고 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공연에서의 배우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배우의 중요성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관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사실적인

연기 기법의 장을 연 러시아의 연출가인 스타니슬랍스키의 다음과 같은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배우는 우선 무대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믿음을 가져야 하며, 또한 무엇보다도 스스로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신뢰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누구든 그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다' 스타니슬랍스키는 배우의 연기 역할을 다음과 같이 4가지의 기본적 특성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로 배우는 외면 연기를 자연스러우면서도 설득력 있게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기의 일상화를 이루어야 하며, 둘째로 배우는 말은 역할의 내적 진실을 관객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로 배우가 무대 위에 표현되는 등장인물의 삶을 역동적이면서도 무대에서만 그치지 않으며 관객들이 동화할 수 있는 인물상을 관객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 끝으로 동일한 장면에서 등장하는 다른 연기와 호흡을 맞춰갈 수 있는 감각을 개발해야만 공연의 완성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무대의 공상적인 세계에 관객들이 빠져들어 자신의 현실과 동화할 수 있는 세계로의 전환을 무대에서 배우가 연기력을 통해서 이루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생각하면 위에서 언급한 배우가 무대에서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4가지의 특성은 특히 공연을 이끌어 나가는 배우가 한명일 때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된다. 왜냐하면 배우는 자신의 그리고 자신만의 연기로서 공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고 할 수 있으며 '의미' 있는 공연 그 자체는 그 공연을 보러 온 관객과의 약속이기도 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관객은 작품의 완성도를 특히 모노 드라마식의 연극에서, 배우의 작품 해석에 자신의 판단을 맡기기 때문이다.

구체적 사례를 통해 본 배우의 중요성

본 글에서는 배우의 역할이 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음의 세 작품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004년 1월 9일~2월 29일에 대학로 설치극장 정미소에서 올려진 콜린 히긴스 작, 한태숙 연출, 박정자·김영민 출연의 <박정자의 19 그리고 80>, 2003년 12월 4일~1월 25일에 알과 핵 소극장에서 프란츠 카프카 원작, 수잔 손탁·장두이 각색, 장두이 연출, 출연의 모노극인 <춤추는 원숭이 빨간 피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4년 1월 3일~2월 1일에 대학로 단막극장에서 공연된 에드

워드 올비 작, 박승원 연출, 오주석·김희중 출연의 <동물원 이야기>. 앞에서 언급한 3작품들은 모두 한 명의 배우에 의해 극의 내용이 주도된다는 데에서 서로 동일한 색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3개의 공연 모두 모노 드라마라고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진정한 모노 드라마인 <춤추는 원숭이 빨간 피터>이외의 <박정자의 19 그리고 80>과 <동물원 이야기>들을 모노 드라마란 차원에서 분석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각각 앞에서 언급했던 배우의 역할을 생각할 때, <박정자의 19 그리고 80> 그리고 <동물원 이야기>에서 박정자와 김희중의 연기 역할, 그들이 차지하는 배역의 중요성은 전체 극의 이야기를 이끌어간다는 면에서 이 두 작품 역시 모노 드라마의 색채를 강하게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위의 세 극에서 배우에 의해 극의 완성도가 어떻게 좌우될 수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관객들은 무엇을 보아야 하며, 배우들은 이와 동일하게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는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박정자의 19 그리고 80>

2004년 1월 9일~2월 29일에 대학로 설치극장 정미소에서 올려진 콜린 히긴스 작, 한태숙 연출, 박정자·김영민 출연의 <박정자의 19 그리고 80>은 주연 배우인 박정자의 역할이 작품 전체를 이끌어간다고 할 수 있다. 작품의 무대 디자인은 깔끔



<박정자의 19 그리고 80>

배우는 무대의 일부분이기도 한 동시에 무대의 세계를 하나의 새로운 세계로 탈바꿈하게 하는, 근본적으로 무대예술의 필수적인 존재인 것이다. 이러한 배우의 역할과 그 역할의 중요성은 극 중에서 배우가 차지하는 비중이 연극 공연의 실패 또는 성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에서 일 수 있다. 연극에서 배우가 주는 직접적인 영향은 배우가 무대 위에 세워진 상상의 공간과 얼마나 잘 동화되느냐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좌우 대칭적 공간 배치와 그 공간을 압도하는 큰 나무 하나로서 작품의 무대를 꾸미고 있다. 이런 공간 연출을 엿볼 때, 표현주의와 상징성이 배제된 무대로서 실제적이며 현실적인 공간의 연출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극의 내용이 지향하는 순수함을 담고 있는 무대였으며, 이러한 무대의 간결함은 다름아닌 이야기의 내용에 더 깊은 무게를 암시적으로 관객들에게 던져주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무대의 중요성보다는 무대를 살아나게 하는 이야기의 전달자인 배우의 역할이 보다 더 중요한 작품이었다.

이번의 〈박정자의 19 그리고 80〉은 고뇌와 자기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는 김영민 분의 해롤드가 박정자 분의 모드라는 할머니를 우연히 장례식장에서 만나면서 새롭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가슴 따뜻한 연극이다. '19 그리고 80'은 극에서 인생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단지 숫자적인 개념이다. 19살에 벌써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삶의 방향 길에서 있는 해롤드에게 80이란 나이로 이제 마지막 순간을 기약하며 살아가는 모드를 대비시키고 있다. 모드의 순수성을 통하여 보여주는 후회 없는 삶과 물질적인 어떠한 굴레에도 억압 받지 않는 삶의 모습은 해롤드의 삶에 다시 한번 삶의 순수성, 꿈 그리고 사랑을 되찾게 해준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이야기의 전개를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모드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드의 역할은 작품 전반을 어루만져주는 역할을 하며 작품을 관객들에게 이해시키는데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모드는 해롤드를 이끌어가는 역할 뿐만이 아니라 그녀가 보여주는 삶에 대한 자신의 모

습과 인생 철학은 관객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생활과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작품에서 모드의 중요성은 작품 전체가 어찌면 모드 그녀 자신이 하나의 모노 드라마 식으로 공연을 전개해 간다고 생각할 만큼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박정자의 연기는 작품이 사뭇 무겁게 치우칠 수 있는 분위기의 강약 조절과 함께 연륜에서 배어 나오는 연기의 자신감으로 작품의 완성도를 올렸다고 할 수 있다. 80의 나이가 지나는 상징성을, 인생의 후반기에 겪는 슬픔과 죽음 등의 무거운 주제를 뛰어넘어서 인생에 대한 추억을 하나의 즐거운 기억들의 연속으로 이끌어가는 비중있는 역을, 박정자는 무리없이 소화 했으며 자신의 연기를 통해 극의 전반을 만들어 갔다. 물론 역할의 비중이 매우 크다보니 그녀의 연기가 다른 연기자들의 연기를 압도하고 무대가 다소 과장되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는데, 이런 점은 약간의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드라는 역할과 작품의 성패는 작품의 장기 공연에도 불구하고 항상 새롭게 작품을 이끌어어나가는 박정자의 연기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춤추는 원숭이 빨간 피티〉

2003년 12월 4일~1월 25일에 알과 핵 소극장에서 공연되었던 프란츠 카프카 원작, 수잔 손탁·장두이 각색, 장두이 연출, 출연의 모노극인 〈춤추는 원숭이 빨간 피티〉는 카프카 원작 단편소설인 '어느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를 각색한 작품이다. 본 작품은 모노 드라마로서 무대 연출은 학술원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각종의 기구들을 사용해서 보여주는 사실주의적인 무대의 연출을 의도했다. 또한 무대를 입체화시킴으로써 한 명의 배우로만 진행되는 극의 단점을 보완하려한 시도는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시키기에 충분하였다.

본 작품의 내용은 실험대상으로 잡혀온 서커스단의 원숭이가 점차적으로 인간 세계에 익숙해지면서 자신의 한 많은 삶을 관객들에게 토로하는 이야기로 꾸며져 있다. 원숭이는 그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인간 세계에 끌려와 각종 실험 등을 통하여 인간의 말과 습관을 배우게 된다. 서커스단에서 활동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되자 한 여인과 결혼까지 하게 된다는 가상적인 이야

기인 동시에 인간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담고 있다. 그러나 원숭이는 자신의 세상과 자신이 사랑했던 아프리카에서의 이전 추억들을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학술원에서 관객들을 앞에 두고 공연 형태로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는 내용이다.

본 공연은 원숭이인 빨간 피터 역할의 장두이 혼자서 완벽한 모노 드라마 형식으로 이끌어가는 공연이다. 무대에 등장하는 배우가 한 명이라는 점은 그 배우가 무대를 어떻게 채워주는가로 연극의 성패가 좌우된다. 공연의 시작과 함께 관객들은 무대 중심에 원숭이 분장을 한 배우 장두이를 발견하게 되며, 마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노래 “What a Wonderful World”가 시작된다. 본 공연에서 경쾌한 리듬의 노래를 사용한 것은 아마도 극의 템포 조절과 함께 서커스단의 원숭이라는 점을 관객들에게 조금 더 가깝게 이해시키기 위한 도구였다고 할 수 있다. 작품의 이야기는 피터가 살아온, 그의 한 많은 삶에 대한 회고를 통해 인간 사회의 모순점들을 하나 둘씩 지적하는 조금은 무거운 주제를 관객들에게 전달해 준다는 기존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모노 드라마라는 특성상 배우의 역할은 공연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즉 무대에서 배우의 역할은 관객들에게 공연이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는 데 있는 것이다.

이번에 공연된 장두이의 <춤추는 원숭이 빨간 피터>는 관객들에게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주는 연극이었다. 대사를 통해서 전달되어야 했던 피터의 한 많은 인생담과 인간 사회의 물질 만능주의 및 자신들의 순수성을 잃은 세계에 대한 비판이 공허하게 관객들에게 전달된 것은 작품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재미와 철학의 부재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관객들에게 보여

주어야 했던 원숭이의 슬픔은 사라지고 하나의 ‘서커스의 쇼’를 구경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작품을 주도해 나가는 배우의 역할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작품에서의 문제는 연극자가 관객들을 공연의 공상적 세계로 인도하는데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혼자서 1시간 30분 동안 관객들의 호기심과 시선 그리고 관심을 끄는 데에 있어서 어려운 점 또한 있을 것이다. 연극 공연은 열린 공간에서 관객과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예술인만큼 연기의 투명성과 역할의 정체성이 요구되며 작품이 담고 있는 주제의 완벽한 전달을 필요로 한다.

이번 공연에서의 아쉬운 점들은 어쩌면 장두이 혼자서 연출을 비롯 출연까지 한데 기인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혼자서 연출과 출연까지 하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자신의 연기가 관객들에게 전달되고 있는가를 간파했다는 것이다. 철학적 담론을 지니고 있는 연극에서의 철학의 부재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들어온 관객들에게는 너무나도 공허한 느낌을 들게 하는 작품이었다. 배우가 작품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긴장감이나 새로움이 없는 무대였으며, 결과적으로 관객들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의 지루한 강연에 참석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한 극이었다. 모노 드라마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배우 1인이 극을 독단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다. 1인극이므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배우는 관객들에게 호소력과 설득력을 주어야 하고 관객과 호흡을 같이 해야 하므로 극의 독단성에 빠져드는 것에 항상 경계하여야 한다.

<동물원 이야기>

2004년 1월 3일~2월 1일에 대학로 단막 극장에서 공연된 에



<춤추는 원숭이 빨간 피터>



〈동물원 이야기〉



지만 그나마 스스로 자신의 생을 끊을 수도 없다. 결국 남의 손을 빌려 죽음에 이르는 나약한 현대인임을 묘사해주는 연기를 보여줌으로써 작품이 지니고 있는 철학적인 담론과 사회 비판적인 기능 모두를 전달하는데 성공했다. 김희종의 내적 갈등을 표현한 연기가 돋보였으며 이는 작품이 필요로 하는 극적 긴장감을 조성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 그의 연기는 이러한 형태의 연극이 관객들에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단점을 상당히 보완하면서 성공적인 공연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한다

배우, 극의 완성도를 좌우하는 최대 요소

배우의 연기는 연극의 중요한 요소인 이야기, 무대, 연출 그리고 조명들 중에 하나이며 동시에 작품의 성패를 좌우하는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한다. 다른 모든 요소들이 간접적으로 작품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면 연기자가 무대 위에서 관객들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며 관객에게 작품이 지니는 미묘한 상황과 내적 갈등 구조 등을 전달하는 것은 현대의 연극에서, 그 영향이 아무리 줄어들고 있다 하더라도 작품의 완성도를 좌우하는 최대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세 작품은 이러한 연기자의 역할이 갖는 중요성을 잘 보여준 작품들이었다. 〈박정자의 19 그리고 80〉, 〈동물원 이야기〉 그리고 〈춤추는 원숭이 빨간 피터〉는 연기자의 역할이 작품에서 얼마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준 작품들이었다. 앞에서의 두 작품이 리드 배우의 역할로 인해서 극의 긴장감 그리고 내적 갈등의 표현에 성공했다면, 〈춤추는 원숭이 빨간 피터〉는 연극이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 충족시키기에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작품이 지향하는 목표 자체가 다르고 역할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연극을 꾸며주고 만들어준다고 할 수 있는 배우의 역할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었어야 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배우가 자신의 역할에 동화되어 관객을 흡수할 때, 관객 또한 스스로가 연극에 동화되는 양방향 관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조화가 하나의 완성된 연극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배우의 끝없는 노력은 관객들에게 신뢰와 연극계 전반의 발전을 가져오는 요소임을 강조하면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

드워드 올비(Edward Albee) 작, 박승원 연출, 오주석·김희종 출연의 〈동물원 이야기〉는 2인극의 형태를 가지지만 이 극 역시 실제적으로 모노 드라마의 성격이 짙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작품의 무대는 공원의 2인용 벤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다른 어떠한 무대 장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상징성마저 제외된 무대는 그 곳이 뉴욕의 센트럴 공원의 한 부분이라는 단서만이 연기자의 대사를 통해 관객들에게 전달될 뿐, 관객들이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다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 무대 연출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로지 배우의 연기로만 작품이 담고 있는 이야기를 전달할 수 밖에 없다.

작품은 공원의 벤치를 사이에 두고 제리와 피터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자신만의 영역에서 타인과 관계맺기를 거부하며 고독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 작품은 현대인들의 삶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물질적인 것에 대한 만족과 순응 그리고 실패한 자들, 가진 것이 없는 자들에 대한 사회의 냉대 등을 두 명의 연기자들을 통하여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본 작품은 사회적으로 낙오자가 된 제리의 역할이 작품 전반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작품이 지녀야 할 성격 역시 제리를 통하여 규정된다고 할 수 있다. 제리의 역은 모노 드라마의 역할과 일맥상통한다. 즉 그의 역은 그의 대사를 경청하는 역의 피터와는 상반되는 역인 것이다. 제리는 자신의 삶을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서 풀어가며 관객들에게 우리의 사회를 다시금 되돌아 보게 한다.

제리역의 김희종은 극중에서 제리가 지니는 슬픔과 동시에 그의 탈출구 없는 삶을 관객에게 잘 전달했다. 김희종은 죽음만이 현실을 도피할 유일한 길이라 생각할 수 밖에 없는 낙오자이